

제5호

춘천

聖市新聞

새해-순종의 복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마음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심을 때에도 복을 받고 들을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2,3,5절)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승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대표전화 (0361) 256-1260-1 FAX (0361) 257-1260



김 광 국 목사
춘천 기독교 연합회 회장,
성광장로교회 담임

성도는 하루가 시작될 때에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 기도로 마칩니다. 일년이 지나갈 때에 회개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에 먼저 새해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저는 이 시처럼 금년에는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요단강의 물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99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인 김소엽 권사의 “물이 되어서”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에서 세례를 받으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물로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이 되어 주홍보다 더 붉은 더러운 나의 죄... 요단강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싶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의 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싶습니다.

물이 되어 형제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그 어떤 욕과 비방도 잘못된 감정도 이유를 묻지 않고 말끝이 씻어주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싶습니다. 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더러운 부분 부분을 깨끗이 씻어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깨끗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 요단강 물이 되어 이 나라 역사에 구비구비 서려있는 죄의 역사를 깨끗이 씻겨 21세기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물로 씻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재단에 흐르는 물이 되고 싶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재단의 물이 되어 재단으로 흘러오는 심령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 한그릇의 강냉이죽이 없어 죽어가는 이북의 아이들에게 강냉이죽을, 만드는 한 사발의 물이 되어 그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빵이 없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한 조각

의 빵을 만드는 한 사발의 물이 되어 그들의 영과 육을 모두 살리고 싶습니다.

저 유유히 흐르는 소양강 물이 춘천과 서울 시내 식수가 되는 것처럼 영생수가 춘천성

시화 하는 것이 나의 생애의 꿈입니다.

주님, 99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해는 영혼이 잘 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는 물이 되어서 주님이 가라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흘러가 물처럼 화해하며 새 생명을 공급해 주는 물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게 하옵소서 아멘.



▲ 99년 1월 4일 오전 11시 춘천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선명회)

춘천을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도시로...

'98년도 성시화기도 모임 송년 예배 설교



▲ 98년 12월 29일 오후 6시 송년예배(어린이회관)

여러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보다 악하고 산것과 물 좋은 춘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들보다 선해서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춘천에 태어난 것을 항상

감사하고 이 춘천을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의 자연만 아름답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 자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야훼의 평화가 흘

러넘쳐야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성시화(HOLY CITY)란 거룩한 성을 만드는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춘천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만 잘살고 나만 축복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개인이기주의, 독선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 가장 무서운 자가 바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도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 성시화는 우리가 사는 이

춘천을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도시,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도시,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이 구축구축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이고,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시화에 대한 신학적 토론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나와 방법이 다르다고 방법을 탓할 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시화의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춘천입니다. 성시화의 열가지 조건을 우리 춘천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지정학적으로 남과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다른 상황이 아니라 제일 먼저 춘천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춘천은 성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상 명령이

요, 시대의 사명입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칠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춘천에 사는 성도들이여... 진정으로 이 춘천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춘천을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이 춘천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첫째자리를 춘천의 성시화에 줍시다. 우리 사업의 첫째자리도 춘천의 성시화에 줍시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시화의 그 날까지, 통일의 그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루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광국 목사)

교계뉴스

도단위 기관장 교계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

강원도청과 도의회 의정 발전을 기원하는 도단위기관장 및 교계지도자 초청 조찬 기도회가 12월 22일 오전 7시 도청 상황실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예배는 박무일 장로(도청 기독교 신우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조남진 장로(성시운동본부장)의 기도, 김진동 집사(도의회 내무위원)의 성경 봉독,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와 이학규 장로(성시화기도모임 대표)의 특별기도, 임택창 목사(석사감리교회)의 축도, 도의회와 도청 신우회 임원들의 특별 찬송이 있었고 김진선 도지사와 허천 장로(도의회 의장)의 인사말

씀이 있었다. 그리고 김주환 목사(순복음 춘천교회)의 만찬을 위한 기도와 조규병 장로(도의회기독교인 연합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춘천 기독교 연합회장 김광국 목사는 설교(빌립보서 3:12~15)에서 바울사도는 찬란한 과거를 잊고 불안한 미래를 향해갔다고, 쟁기를 잡고(눅 9:62) 뒤를 돌아보는 과거 지향적인것은 발전하지 못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꽃대를 향하여 능동적인 자로 21세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갈 것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감명을 주었다.



98년도 춘천성시화 기도 모임 현황

기도모임은 목요일 저녁 world Vision(구 선명회)에서 43회, 직장방문 기도 5회, 교회방문기도 4회, 총 52회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교는 윤철중 목사(전 춘천기독교 연합회장)의 51개 교회 목사가 담당하였다. 교회 방문시는 당회교회 목사가 직장 방문시는 당회 직장에서 설교목사를 초청하였으며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

님을 균형있게 초청하였다. 종류별로는 성시화 기도 모임 34회, Vision 126 기도 모임 9회, 직장선교회 방문 5회, 교회방문예배 4회였다.

춘천성시화 기도모임대표 이학규 장로, 총무 유근창 교수, 비전 126성시화 기도 모임 총무위원 조은제 장로 등의 숨은 봉사자 기도 모임은 뜨겁게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신우회 창립



최동우 장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장

98년 12월 26일 오후 1시 도 농업기술원(전 농촌진흥원)신우회가 창립되어 동원회의실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한데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므로 초교파적인 직장교회가 세워졌다.

농업기술원의 기독교인들은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먼저 직장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한데 뭉친것이다.

전 동부연회 감독이신 김창수목사(신성감리교회)님은 설교에서 니고데모의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직장인들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함을 역설하여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우회장에 강안석 식물환경과장, 부회장 기술보급과 최봉헌, 총무 식물환경과 권혜정성도가 선출되었으며 최동우 장로(원장)는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Homeles가족 돕기 찬양 콘서트

98년 12월 26일 오후 7시 강원 대학 백령문화관에서 동원감리교회 주관으로 Knee & Knees 찬양선교단 가수 하덕규, 송시원을 초청 동원감리교회 중고대청년 연합성가대

와 같이 찬양 연주회를 가졌으며, 이날 수입 전액을 집없는 가족 돕기에 사용하였다.

춘천기독교방송국, 태영교육, 신진학교 등이 후원하였다.



목회자와 사모님 컴퓨터 무료교육



조득영 목사
컴퓨터 A/S센터 대표
광명장로교회 담임

컴퓨터 A/S센터를 춘천에 개설하고 1월 4일부터 교역자와 사모님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교육과 A/S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도님들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차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에 GO GAPCK 무료 신상 자료방을 개설하며 현재 인터넷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 많은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정보통신 위원회"는 서울 본부 사무실을 춘천으로 이전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선교 A/S센터 252-2007

컴퓨터 교육상담 252-2006

※교육은 기초반, 중급반으로 2주간 완성

해외선교소식

예수도시 꿈꾸는 이영길 선교사 그는 누구인가?

그는 춘천동부장로교회 출신으로 춘천성시화 운동에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진 차세대 주자의 한사람이다.

7년간 미국 웨스트 민스터 신학대학에서 대학원과정을 마쳤으며 박사과정을 뒤로 미루고 선교현장에서 실천신학의 산지식을 습득하고자 인도행을 자처한 선교사이다.

96년 1월 북인도 머수리에 도착 수천년간 복음의 황무지로 남아있는 비하르의 개간을 위하여 5개월간 준비한후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비하르에 목숨을 담보로 용감하게 입성한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사역자이다.

인도 파트나 비하르주는 춘천성시화 기도모임과 자매결연한 선교지이며 동기 기도모임은 이곳 춘천에서 매주 목요일 기도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파트나 비하르의 예수도시 성시화의 꿈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도시

이방 종교로 열방을 미혹하던 곳이 바뀌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시

선교사의 무덤이 바뀌어 주님의 포도원이 된 도시

1억 영혼의 비하르에 복음을 실어나르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통용되는 도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도시를 꿈꾸어 봅니다.

사랑과 섬김, 공의가 제일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도시

주님으로 인하여 예술과 문화, 과학이 꽃피는 도시

낮은 자, 약한 자가 경시되지 않은 도시

세계를 섬기는 선교사가 파송되는 도시

“유랑하는 나그네들도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도시의 꿈입니다.”



선교사 가족과 현지 사역자들의 밝은 모습에서 희망의 빛이 보인다.



98년 10월 19일부터 24일 세미나중 말씀증거와 성경집회(조은제 장로)



파트나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문화집회 모습



미용·의료사역을 통한 지역주민 진도 장면

All Nations Worship & Praise Ministries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21세기를 향한 20세기의 영적 출애굽이라는 켈치 프레이즈를 걸고 실시되는 청소년들의 영성훈련학교가 춘천에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과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세속화로 질주하고 있는 이 때 이러한 영적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예수사랑운동”이 주관하는 “고3영성훈련”은 '98년 11월 30일부터 금년 2월27일까지 매주(월, 화, 목, 금)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인격도야 훈련을 위하여, 로마서 성경공부와 인간관계 훈련, 예배자 훈련, 국내선교여행, 특강 등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98년 12월 22일 오후 6:30 강원대학 백령 문화회관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학교가 문을 열어 영성 훈련 중에 단구는 시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있는 청소년들의 심령을 더욱 뜨겁게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한국교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보며

우리나라에는 2천여개의 연구소에서 3천여명의 전문가들이 연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현재와 미래의 사회, 경제, 교육, 정치, 문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어떠한 투자와 연구가 있는가?

교회 성장 세미나 운운하며 세불리기(세불리기)에 힘을 기울이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98년 11월 26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하고 갱신을 주장하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창립하였다.

그러나 남의 교회 갱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교회 갱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정치력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래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긴밀한 유대 속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계성이 요구될 것이다.

역사자들은 현대교회의 풍요로움을 암흑기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할지도 모른다. 물질의 풍요로움만큼 우리의 심령은 맘몬주의로 비신앙화되고 강박해지기 때문이다.

IMF로 기업이 퇴출되고 노동자가 정리해고 당하고 노숙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다. 이제 5대 재벌들의 빅딜로 수만명이 실직위기에 있어 너도나도 아우성이다.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것은 그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려는데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물질의 부유함이 곧 선진국이요, 축복인양 교만을 부리는 세태속에 사회혼란은 가중되고 현재의 고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신 물질을 나누고 이기심을 버릴때 한국 교회에 밝은 빛이 있을 것이다.

이제 교회자체의 군살빼기 운동이 필요하며, 뚜렷한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웃교회는 대적해야 할 경쟁 상대가 아니며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협력할 때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의식개혁, 신앙혁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투자와 연구가 있을 때, 한국교회는 갱신되고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주게 될 것이다.

(김준언 목사 서로사랑교회)

하나님과 하느님

공동번역 성서는 하느님 개역성경에는 하나님

초등학교생이 어머니에게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냐 물었다.

어머니는 성경의 「하나님」이 애국가에 나온 「하느님」이란단.

「하느님」과 「하나님」중에 어느말이 맞는가?

이 어린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하느님」을 「신(神)」, 「상제(上帝)」, 「천주(天主)」, 「하나님」으로 혼용해 쓰다가 1900년 개신교에서 「신약전서」의 결정판을 찍어낼 때 「하느님」으로 통일하였읍니다. 이것이 한국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홀소리(·)가 없어지면서 오늘날→오늘날→오늘날로 변천하듯 성서개역판을 보면 하느님(1904년판)→하나님(1937년판)→하느님(1953년판)으로 변천하였읍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하느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다른 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하느님」과 개신교에서 쓰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 또는 「하나님」의 어원은 「하늘+님」이지 「하나(一)+님」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하나(一)」의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옛말은 「하나」였지 「하나」도 「하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一)+님」은 어법상 잘못입니다. 우리말은 명사에 존칭을 붙여 쓸 수는 있어도 수사+존칭 접미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에 존칭 접미사 「님」을 붙여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면, 「둘+님」, 「셋+님」도 가능할 것인데, 우리말에 수사에 존칭을 붙이는 「둘님」, 「셋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마6장)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를 경배하자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하느님」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이상 이들을 같은 뜻으로 당분간 혼용하여 쓰되 언젠가는 「하느님」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혼동하지 않고 동일한 분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것입니다.

(동원교회 소식지에서 황병찬 권사)

인천홀리클럽 창립예배



'98년 12월 25일 오후 6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성산효도대학원 대학 성산홀에서 회원들과 축하객들 4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예배와 총회가 있었다.

인천시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 구의원등 지역유지들이 다수 참석하였으며 춘천, 대전, 청주에서도 수십명의 축하 사절단이 참석하여 창립예배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인천 Holy club 창립은 인천을 살리는 성시화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으며, 더욱이 이날은 성탄절로서 의미가 컸다.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목사님은 설교에서(마6:33)나라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130년전 최초로 복음이 들어온 관문으로서의 인천이 모든 분야에

성시칼럼

기독교인은 모범시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춘천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셨으며 성시화를 명하셨다. 기독교인은 세상법은 물론 마음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시민이 되어야 한다.

교회생활에는 모범적이면서 이웃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엉터

리 기독교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춘천에 사는 기독교인은 나부터 모범시민으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빛과 소금의 교훈을 가슴에 붙이고 사는 모범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 앞서고 건강한 도시 성시화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제 태어난 홀리클럽의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인천의 성시화를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표정이 밝았다.

복음은 인천으로 들어왔으나 우리나라의 동쪽 춘천에서 성시화운동이 먼저 시작되었고 청주와 대전에 성시화 운동

본부가 창립되었으며 인천으로 돌아온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것이라며 누군가 발언하여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었다. 춘천에서는 조남진 장로, 조중환 목사, 신종철 집사, 유근창 집사, 김영명 집사 등 10여명이 창립예배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기독교 문화

新年祝詩 1999

또 한 천년의 문을 여는 자리

늘상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지상의 나날들을
삼백백순대엿새 보내고 달력을 새로
바꾸며 우리는 새해라고 마중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세의 순간에서부터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고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아래
계절을 나누고 주관계 하는
조화로운 질서 안에서
누리던 완전과 영원과 풍요의
동산에도
시간은 강물과 같이 흘렀을 것이다.

최초의 범죄로
어둠과 죽음의 땅으로 추방된 후
사람의 나날들이 저마다 길게 혹은
짧게 매듭지어진 이래

수천년이 흐르고
광야와 유랑의 세월 속
기다림과 배신의 발걸음이 남긴
시간의 허망한 흔적 끝에
그리스도의 나신 후

또 한 천년의 문을 여는
설레임의 자리를 예비하며
언제나처럼 돈은 희망의 싹을 보듬고
첫것을 드리는 번제의 불길 같은
동해의 태양, 모든 기도의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타오른다.
새 술이 담긴 새 부대처럼 부풀어
오른다.

어둠과 미망의 그물을 찢는 시린
손길의
아픔과 함께
마침내 이르게 될
사랑과 생명의 그날을 바라보는
기나긴 기다림의 해변에서
또 다른 다짐으로서 있는 이 자리를
우리는 새해라 하고 싶다.

김 춘 배

○1956년 춘천에서 출생.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서양화전공)
○개인전 1회
○가톨릭미술인 연합전
○1986년부터 시동인 풀잎에서 활동
○문예진흥기금 지원으로
동인시집 6권 출제
○화북 교회 서리 집사

牧羊一念

黃在國



황 재 국

○근역서가회 회장역임
○동방문화비교연구회 이사
○국제서법연합회 회원
○한국 서예가 협회 상임이사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문학박사)
○주소: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
학교 한문교육과

예배와 음악



임 창 호 교수

서울 신학교 춘천 분교장

나. 음악의 내용

성경에는 음악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여러곳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배소서 5장 18절에 보낸 시(Psalms)와 찬미(hymns)와 신령한 노래(Spiritual songs)를 부르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 보편적으로 시는 시편을, 찬미는 시편이외의 찬송을, 신령한 노래는 복음송과 같은 영적인 노래를 말한다. 이러한 노래들은 모두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다.

주일 낮예배와 저녁예배가 다르고 장년예배와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예배가 각각 다르다. 또한 일반예배와 부흥회가 다르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예배, 성탄예배, 신년예배가 각각 다를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예배라도 그 예배에 맞는 내용의 음악이 드러져야 하며, 그 음악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포, 성령의 역사를 통한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도록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악기의 사용

교회음악에서 악기는 대개 보조적으로 사용이 된다. 악기 자체만으로 사용될 때는 그 음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감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음악에서 악기는 적극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제즈에서나 사용되었던 악기들(드럼, 베이스 기타, 신디사이저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분별없는 사용이 문제

인 것이다.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라. 형식과 내용과 악기사용의 조화

음악은 형식과 내용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악기의 사용이 그 음악에 맞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표현하는 찬양을 엿박자의 리듬과 드럼을 치면서 연주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회개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것이다. 사탄과 싸우기 위한 내용, 승리의 표현은 이런 표현을 도울 수 있는 악기들을 동원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악기이든 서양의 악기이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결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 악기로 인해 마치 술집이나 춤추는 곳을 연상하게 된다면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타악기가 무당굿 하는 것을 연상시킨다면 역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악의 형식도 마찬가지이다. 일부러 세상에서 유행하는 형식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Rock 가수들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집

회에서 그 음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잘 분별해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상업적인 수단이나 개인인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마. 적용성

교회음악은 어떠한 음악을 언제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바흐, 헨델(G. F. Handel), 모짜르트(V. A. Mozart) 음악이라도 부흥집회에서 연주한다면 교회음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불같은 성령"을 타악기를 동원하여 부른다면 "내 주의 보혈은" 조용한 전 자악기나 오르간의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오케스트라나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로 헨델의 할렐루야를 부른다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회음악은 음악 그 자체보다는 그 음악이 누구를 노래하며, 그 음악의 형식과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 교회음악으로 인해 성도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잘 분별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광장 시민과 함께

World Vision 사업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조 남 진 장로
World Vision 도지부장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장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섬기시는 교회와 일터, 가정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해에는 IMF한파로 인해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후원자들의 희생적인 동참으로 국내외 지원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기대와 희망속에서 1999년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91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빵을 비롯한 모금에 교회학교 어린이의 고사리 손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 가정, 기관, 점포, 도내 교회들과 각급학교 학생들로 확대되어 오병이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받았

던 지난해에도 3억 1천만원의 모금후원금이 모아져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등과 국내의 수해지역에 긴급구호사업을 할 수 있었고, 폐광지역의 진폐증환자와 가정, 독거노인, 영세가정에 매월 생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 급식사업과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에 전념치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했으며, 94년 12월부터 북한지원을 시작하여 현재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6개 지역에 국수공장을 설치 매일 6만명의 동포에게 한끼의 국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산하 3개 복지관(춘천, 동해, 강원도장애인)과 태백개발사업장을 통해 아동, 청소년, 가정개발·노인·재가·장애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도움을 뜻 받들어 사랑의 사역을 감당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여러 단체에서 산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없이 봉사해주신 자원봉사자와 어려운 중에 도우미의 소중한 것을 선택해 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후원자들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기독교 지도자님들의 기도와 협력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기묘년에도 임마누엘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더욱 신실하게 사역에



이 순 훈 장로
World Vision
춘천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실직가정과 결식아동을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돕는 사업을 폭넓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꿈이 있으면 고통이 줄고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에 선명회는 월드비전(Worldvision)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언제나 밝은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지난해의 뜨거운 협력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지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 좋은 열매로 20세기를 마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드비전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사업

결식아동급식사업

IMF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울, 강원, 전북, 충북지역의 실직자 가정 아동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점심을 거르지 않고 학교에 다니도록 돕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 운영

전국 11개 주요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합니다.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는 기술교육, 취업알선, 맞춤형 가정 자녀의 교육, 청소년 동아리 활동,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등의 사업을 전개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강원도와 군산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교육, 순회상담치료, 물리치료, 부업알선 등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자립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아동시설 지원

전국 50개 육아원, 10개 모자원, 6개 영아원, 9개 재할원의 아동들에게 기독교 교육과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정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

태백, 전주, 군산, 제주지역의 도시영세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등을 위해 교육, 소득증대, 보건위생사업을 실시하고, 갑포지역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화해, 과수, 양어, 유기농업 등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결연사업

강원도와 전남 폐광지역의 진폐환자가 정, 독거노인, 영세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태백사회복지회와 강원지역 26개 교회의 협력으로 진행됩니다.

선교사업

서울 외곽의 자활근로대원(남마주이)의 장막전도사업을 지원하며 재소자가정을 후원하여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교계지도자 간담회와 각종 선교와 발간을 통해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해외사업

결연사업

방글라데시, 베트남,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스리랑카, 솔로몬군도, 벨리루스, 요르단, 바누아투에 살고 있는 빈곤가정의 아동 1만 5천 여명과 국내 후원자를 결연하여 급식, 교육, 의료, 선교사업을 진행하여 아동의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농업개발과 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역개발사업

캄보디아, 미얀마, 콩고, 보스니아 등 8개 저소득 국가의 주민들의 자립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개발, 보건사업, 교육사업, 식수개발등을 실시합니다.



긴급구호사업

르완다, 케냐 등 내전과 홍수, 가뭄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난민들에게 긴급구호를 품(식량, 의약품, 담요, 식기등)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안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교사업

몽골과 루마니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훈련과 교제보급, 교단간 화해사역과 미전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연구와 접근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실시합니다.

북한사업

94년 12월 북한당국자들과 식량지원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95년 5월에 수수 5백톤을 할당도 남양으로 보내면서 시작된 월드비전의 북한지원사업은 96년 말부터 시작된 북한 국수공장을 97년에 6개로 확대하면서 효과적인 구호사업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는 국수공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식량지급의 기쁨을 마련하기 위해 개천, 강동지역에 4개 시범협동농장을 선정하여 보리종자, 비료, 허수스물비닐 등을 지원하고 수경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월드비전(Worldvision)은 한국전쟁 때 전쟁고아와 이 망인을 돕기 위해 미국인 선교사 밥 피얼스(Bad Pierce) 목사가 헌정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설립한 세계 최대의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으로서, 현재 전세계 94개국에서 인종과 국가, 종교를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9천만 명의 수혜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한국은 1991년까지 해외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시설아동 및 도시빈민지원사업, 음성나환자촌 정착지원사업 등을 전개해왔으며 1992년부터는 국내후원자의 힘으로 13개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75개 시설아동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굶주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웃들을 돕기 시작하여 현재 20개국 39개 사업장에서 긴급구호와 개발사업, 선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는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켜서 정의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월드비전의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결연후원

국내결연/해외결연/가정결연

영세가정의 아동, 소년소녀가장, 장애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국내아동(국내결연)과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저개발 국가의 빈곤가정 아동들(해외결연), 그리고 강원도 영광지역의 진폐환자 가정(가정결연)을 매달 후원금으로 돕는 후원방법입니다. 후원자는 결연아동 및 가정의 사진과 아동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 및 사업보고서를 받게 되어 결연아동과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3만 여명의 후원자들이 월드비전을 통해 아동과 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아체형 24시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월드비전의 세계적인 모금프로그램으로, 24시간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굶주린 지구촌 이웃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모금활동을 펼치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대축제입니다. 서울방송(SBS)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기아체형 24시간은 98년 한 해만도 2만 여 명의 기아체형봉사단원들이 참여하였고 봉사단원들의 모금과 방송을 통한 ARS모금을 합해 25억 여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북한 국수공장과 콩고 키키미 개발사업장, 르완다 난민고아원 그리고 국내 결식아동과 폐광지역 진폐환자 가정들 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랑의 빵

빵모양의 저금통에 동전을 채워 지구촌 굶주린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운동입니다. 91년 시작된 사랑의 빵 운동을 통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빈곤국가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국내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지급하여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약 6백 8십만 개의 사랑의 빵 저금통이 배포되어 전 국민의 사랑나눔기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웃사랑과 절의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결연후원 및 사랑의 빵에 대한 문의나 설명회가 필요한 교회나 단체들은 연락해주시요.

문의처:

0361-254-7244
(강원도지부)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 춘천성시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李姬秀 수필가
강원고등학교교사, 한국수필가협회,
한국문인협회회원

己卯년 새해를 맞았다.

1999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물론 사회적 종교적 의미도 크지만 성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세기말을 향한 시점은 자못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IMF가 한국경제에 끼친 파급효과는 비로써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던 사회의 종말을 스스로 확인하고 하느님께 회귀할 수 밖에 없는 인성회복의 순간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데 있지 않나 한다.

1999년은 세 번째 맞이하는 대회년의 서장이 시작되는 해이다.

구약성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禧年의 정신은 땅과 인권에 대한 이해며 사랑이다.

레위기 25장 4절의 안식법을 보면 유대인들이 땅의 안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땅의 휴식과 노예의 안식으로 소유를 끊임없이 증대시키려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중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회년제도야말로 우주질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禧年이 갖는 정신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평등하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점이 첫째 정신이다. 그리고 인간의 경제적 삶의 조건이 평등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모든 관계에서의 원래 온전했던 관계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가 추구하는 높은 정신가치의 소산이다. 아울러 회년이 갖는 휴식의 정신이야말로 찌들대로 찌든 현대인에

게는 생명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30여 년 전 우리 집에서도 「춘천 성시화모임」이 자주 열렸었다.

무엇보다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지금의 내 나이장도의 어른들이 모여 열심히 바이블 스터디를 하였고 춘천을 성스러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꽃피우시던 그 모임이 불현듯 떠오른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이었고 그 때의 아버지는 벌써 일흔이 훨씬 넘으셨다.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지구에서 어찌면 가장 성스러운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깨우침을 가졌던 이 도시의 벌써 한 세대 전의 이야기이다.

춘천이 聖市가 되기 위해 전 시민의 복음화가 선결문제라고 많이들 주장했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세롭게 태어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아이덴티티도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우리 사회가 저지르는 불의와 타락을 보면 정말 이 민족이 그렇게 복음적인가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감히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춘천의 聖市化는 철저히 회년정신을 구현하는 자세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세상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 한맺힌 절규가 끊이지 않는 땅에 어떻게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수 있을까.

이 도시에서만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수고한 이들에게 고른 보상이 내려 억울한 아픔의 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면, 또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소외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않고도 한평생 살 수 있어 폭력적인 힘의 논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바로 성스러운 도시가 이 땅인 것이다.

성서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향의 실재는 어찌면 우리세대에 그렇게 맞이 할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성시 회비 송금 방법

농협 203-02-280238(예금주/조남진)

강원은행 509-05-025501-001(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39352(예금주/조남진)

국민은행 301-01-0585-522(예금주/조남진)

제일은행 625-20-265119(예금주/조남진)

· 회비-(단체)월1만원이상, (개인)1천원이상

· 년회비-10만원, 특별회비:5만원이상, 평생회비:100만원

· 송금방법은 자동이체가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세요.

※매월 5일 강원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시 입금수수료가 없는 날입니다.

성시신문 기사 보내주세요

보내실곳

원고접수기간:매월5일까지

주소:(우200-091)춘천시 효자1동 373-90번지 춘천성시신문 제작부

☎(0361)256-1260~1

FAX:(0361)257-1260 PCS:016-246-2752

PC통신ID:KIBIBLE2(하이텔)

E-mail:KIBIBLE2@hitel.net

성시신문은 아주 작은 소식 매체지, 투고도 감사히 받습니다.

※구 독: 성시신문 정기구독(무료)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본신문은 3,000부를 발행하며 무료입니다.

성시회원 12월 후원현황

성시회원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지극하신 정성으로 성시화운동은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후원금 결과를 지상으로 보고 드리오니 헤량하시고 금중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에 교회와 개인들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인후원자

월 1,000원 ~ 5,000원 : 안미정, 왕순옥, 김현철, 이병연, 안정숙, 고선희, 신영숙, 한희현, 성기운, 허순영, 정유양, 박승희, 권순이, 김영달, 이봉자, 최경용, 임은경, 이준택, 홍순복, 정순녀, 홍성운, 정용현, 이홍순, 정찬복, 오홍수, 황병찬, 박동환, 고신옥, 이계현, 서의승, 박재복(20,000).

월 9,000원 : 김성옥.
월 10,000원 : 신성균, 김원호(30,000), 한석웅, 조광수, 윤진옥, 이문자, 장기영, 남궁진, 김석범, 김남철(20,000), 맹영웅.
월 20,000원 : 김태종, 김철수, 양인평, 김영명, 조충환, 최계현, 박영희.
월 30,000원 : 조남진, 유근창, 백원일, 배명숙.
월 100,000원 : 조은재, 이용규

단체후원자

월 20,000원 : 춘천택시(주), 직장선교연합회
월 50,000원 : 열린교회, 알로에 마인
100,000원 : 도청신우회
월 500,000원 : 중앙상경교회
월 953,760원 : 순복음 춘천교회

광고선교비

· 메트로 정형외과 조은재 장로 : 500,000원

※ 송금중에 있는 후원자

· 1,000원 ~ 5,000원 : 김광순, 김성옥, 서원단, 지금복, 한영숙, 임이남, 이화자, 박희숙, 김은자, 김성금, 박은주, 이윤식, 정명순, 이승철, 백기만, 이경용, 이미경, 조성에, 신영자, 이종택, 이경자, 홍신일, 고영희, 강원영, 김영순, 윤영순, 장효덕, 장수영, 신민승, 황용학, 황희중, 한대회, 임성택.

· 10,000원 : 강주원, 김종혁, 김진삼, 김은양, 김복희, 김영선, 박무일, 이경숙, 안동규, 이상표, 유태희, 이해영, 윤건배, 조자영, 서승달, 한재화, 이학규, 임창호.

· 12,000원 : 민혜원.

· 20,000원 : 조정일, 심혁화, 최인혁, 정태복.

· 30,000원 : 유수열, 박경애, 박봉영, 조석봉, 정동준.

· 100,000원 : 최치광.

· 30,000원 : 일신장로교회.

· 광고선교비 : 성광전기 김철호 집사 - 100,000원.

대한인쇄기획 지영철 사장 - 100,000원 이상.

안디옥 기독교 서점 홍광유 장로 - 100,000원 이상.

중앙감리교회 - 500,000원.

강촌 갈보리 기도원 이평해 원장.

석정 갈비 - 300,000원.

종가, 강원대학 대백관 식당 대표 정을집 권사 - 100,000원 이상.

어린이 회관 디너레스토랑 - 200,000원 이상.

성장하는 교회

춘천복음화 성시화 세계선교를 꿈꾸는 교회



한 군 목사
평화감리교회 담임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춘천복음화와 세계선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1978년 4월 23일 구 향교회 관 3층에서 새가정으로 개척 창립한 동교회는 현재 재직교인이 2,000명에 이르고 출석교인 1,000여명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으며 춘천복음화와 세계선교라는 목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현재 담임교역자인 한 군 목사님이 신학생 신분으로 평화교회를 개척 시무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섬겨오고 있으며, 창립후 3년만인 1981년에 현재의 위치인 동면 장학리 791-9번지에 교회 부지를 확보하고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한 후 지속적인 부흥으로 인해 6회에 걸친 확장공사를 거듭하게 되었고, 지난 1997년 1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창립20주년 기념예배당을 1,000여명의 대지 위에 아름답게 건축하여 춘천복음화를 위한 열린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일 새벽 대형버스 3대를 운행하여

새벽교회 성도들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고 일년내내 매일 철야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금요연합철야기도회를 중단없이 실시하고 있는 기도에 불타는 교회이다. 1999년 새해에는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다가오는 21세기 세계적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자라나는 신세대와 외국인들을 위해 주일낮 3부예배 중 제1부(오전8시~9시)를 영어예배로 드리는 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평화감리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년 1998년에 인도선교 8주년을 맞아 인도에 6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한국인 선교사 세 가정을 파송하고 9명의 현지인 목회자를 세웠다. 특히 현지인을 사역자로 양성할 준비를 갖추었다. 현재 동남아, 오세아니아,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 10명의 선교사를 파송 후원하고 있다. 장차 북한도 복음화하고 나아가 300명의 세계 선교사를 섬기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 춘천평화감리교회의 교세는 목사1명, 전도사 1명, 교육전도사 4명, 선교사 10, 사무장로 7명, 원로협동장로 2명이며 이들은 1,00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한국 담임목사의 목회방향 목표달성을 위하여 새벽기도, 철야기도, 책임전도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어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무료봉사 웨밀리 닥터 (Family Doctor)



박 영 휘 장로
일진의료기 춘천지점장

보건복지부 제조허가 제538호, 세계 7개국발명 특허 교번자장, 음전위치료기, 수맥파 전자파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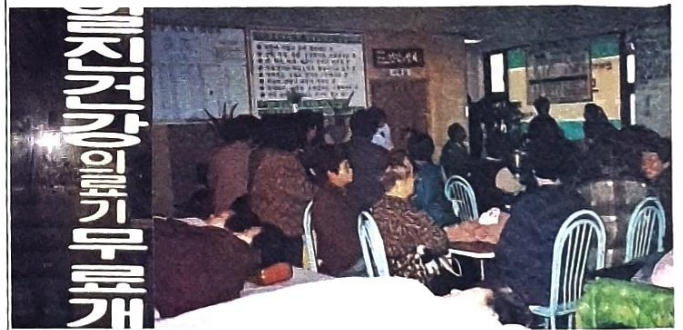
- 온몸이 무겁고 몸이 걸리시는 분
- 건통, 목통, 요통,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 다리, 어깨, 허리가 쑤시고 아프신 분
- 수험생이나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싶은 분

- 앉아있는 상태로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
- 화장이 안받고 피부가 거친 분

초장파 치료기의 효능

- 인체조직의 탄소, 산소, 질소, 망간, 철 등에 자화작용을 도와 체내 세포재생을 강화시켜줍니다.
 - 체내에 막힌 혈을 뚫고 염증을 풀어줍니다.
 - N과 S극이 1초에 60회 교번하는 초장파를 발생시켜 체내에 세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 인체의 연수, 흉수, 요수, 수선, 선수 등과 삼지, 하지, 각부중심으로 투입하여 진신응고를 풀어줍니다.
- * 이용시간 : 매일 오전9시~오후9시
* 위치 : 춘천시 후평3동 702번지 (부안막국수 입구대로 2층)
전화 244-5008
- ※ 봉사와 복음전도를 위한 사업이 꿈입니다.

(관리실장 박제연 집사)



“새해” 춘천 도성에 평화와 축복을...



기독교 평화교회

대한감리회 PYUNGWHA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 한 군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 전도사 : 김상엽
- 사무장로 : 김동열, 장석신, 김현배, 김종식, 신 현, 민경옥, 오문식
- 원로장로 : 심이택
- 협동장로 : 민철호
- 교육전도사 : 김우홍, 윤혜은, 이용욱, 이길형
- 사무간사 : 김윤자
- 평화의한양팀 : 리더 - 김진이
- 살롬성가대 : 주희 - 김은국, 반주 - 손혜원 (Pn) 김성옥 (Org)
- 가브리엘성가대 : 반주 - 김에스더 (Pn) 남지영 (Org)
- 한나성가대 : 반주 - 김에스더
- 다윗성가대 : 반주 - 최선영
- 호산나성가대 : 지휘 - 김유미, 반주 - 최선영

우리가 섬기는 해외 선교사들

- 필리핀 : 홍양순, 두사디, 안창원
- 대 국 : 윤수길, 오경희, 오필환, 정문길
- 일 본 : 사비다케시
- 북 한 : 모봉이들
- 브라질 : 이성진
- 중 국 : 윤남근
- 인 도 : 최철만, 신영자, 백정하, 현지인, 목회자 11명, 줄리안, 데이빗, 스테판, 키란, 데라둔신학교 (NTC)
- 탄자니아 : 송기섭
- 러 시 아 : 말인환
- 방글라데시 : 정재하
- 뉴질랜드 : 윤 석

200-16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 앞

☎ 시무실 241-5621, 241-5622, 관리실 241-5624, 복사반 255-8525, Fax 256-5673